

-(으)ㄴ진대

~할 것 같으면, ~하니

예스러운 말투로 전제를 인정하고,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. ‘~이니만큼’에 해당하는 고전적 형태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진대	그러하다 → 그러할진대
자음으로 끝남	-을진대	있다 → 있을진대
ㄹ로 끝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진대
축약 변이형	-(으)ㄴ진댄	그러할진댄
뒤 절	결론 또는 명령	어찌 달리 하겠는가
양보일 때	-(으)ㄴ지라도	어려울지라도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ㄴ 탈락 규칙에 따른 표준 방식입니다: 만들다 → 만들진대. 붙여 쓰며, 진댄은 축약된 변이형입니다.

앞 절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전제를 제시하고, 뒤 절은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결론이나 권유를 이끌어 냅니다: 이치가 그러할진대 어찌 달리 하겠는가.

뒤 절은 수사 의문문이나 명령문인 경우가 많습니다. 고전적 문체는 이런 어미들과 잘 어울립니다.

양보하며 밀고 나가는 -(으)ㄴ지라도와 달리, -(으)ㄴ진대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그 전제에서 출발해 추론합니다. 두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.

■ 예문

- 1 이치가 그러할진대 어찌 달리 하겠는가.
- 2 뜻이 있을진대 반드시 길이 있으리라.
- 3 사람이 바를진대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.
- 4 배움을 귀히 여길진대 스승을 공경할 일이다.
- 5 손수 만들진대 그 정성을 어찌 값으로 매기랴.
- 6 근본이 굳을진대 흔들릴 까닭이 없다.

■ 비교

-(으)ㄴ지라도
꼭 구별해야 할 짝입니다. 지라도는 무언가를 양보하고 그래도 밀고 나가며, 진대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추론합니다.
어려울지라도 하겠다. (어렵더라도) / 그러할진대 달리 할 수 없다. (그러하니 따라서)

-(으)ㄴ즉
둘 다 예스럽고 둘 다 주어진 사실에서 추론합니다. 은즉은 실제 사실을 말하고, 진대는 논의를 위해 그것을 가정합니다.
그러한즉 이해하시라. (이러하므로) / 그러할진대 어찌 달리 하랴. (그러할 것 같으면)

-(으)면
어디서나 쓸 수 있는 현대의 조건 표현입니다. 진대는 문장을 고전적인 문체로 만들고 무게 있는 결론을 기대하게 합니다.
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. (현대어) / 뜻이 있을진대 길이 있으리라. (고전체)

■ 주의

- ✗ 손수 만들을진대 값을 따질 수 없다.
- 손수 만들진대 값을 따질 수 없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갖추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와 같은 방식입니다.
- ✗ 어려울진대 그래도 하겠다.
-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하겠다.
어려움을 인정하고 그래도 밀고 나가려면 -(으)ㄴ지라도를 씁니다. 진대는 전제에 맞서지 않고 전제에서 추론합니다.
- ✗ 야, 시간 있을진대 커피 마시자.
- 야, 시간 있으면 커피 마시자.
-(으)ㄴ진대는 고전적인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는 -(으)면이 자연스럽습니다.